

다산포럼

이정미와 박근혜



김정남 언론인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 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는 것을 보면서, 나는 몇 가지 벅차오르는 감회를 느꼈다. 하나는 “사필귀정이란 이런 것이구나, 법의 이름으로 정의가 승리하는 사필귀정을 내 살아생전에 이렇게 볼 수 있다니”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또 하나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고 있다는 안도감이었다. 논란이 심했던 대통령이 피를 흘리지는 않았고 현직에서 물러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통이 우리 손으로 마침내 세워졌구나 하는 자부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셋째로는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는 두 개의 열정이 주말마다 도심의 광장에서 분출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여론의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오직 사실과 헌법 기구에 대해 마땅함을 사선을 가지고 있었다. 대법원에 헌법 판단을 하는 기능을 부여하면 되지, 구태여 방대한 예산을 들여 옥상옥이라 할 헌법재판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생각했다. 거기가 역대 헌법재판관들의 면면을 보면, 유신시대 대표적인 공안검사를 앉히지는 않나, 정권을 빌붙어 법으로 아세하는 무리들이 낙하산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나.

아직도 그 임용 방식 등에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번 탄핵 심판을 보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나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새삼 헌법재판소라는 기구에 대한 신뢰와 함께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

특히 이번 탄핵 심판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바로 탄핵 심판 선고일에 헤어돌 2개를 머리에 단 채 출근한 것이 세인의 화제가 되었던 이정미 권한대행. 그날 그가 해야 하는 역할에 얼마나 심취 골몰하였으면 머리에 헤어돌 2개가 달려 있는 것도 모르고 출근했을까. 나도 헤어돌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지만, 어느덧 이정미 권한대행은 정신없이 바쁘게 일에 매진하는 ‘일하는 여성’의 상징처럼 되었다. 세월호 참사 때 울림머리 하느라 어린 생명들이 물속에서 죽어 가는 것을 방치한 박근혜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이 밖에도 이정미 재판관의 행보는 여러 면에서 박근혜와 대비된다. 아마도 그는 박원철 소장의 임기 중에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굳이 탄핵 반대편에 서있던 사람들의 억지 주장이 아니더라도, 그 심판을 자신이 떠맡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그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판결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헌정 위기 상황을 더 이상 계속해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이다.

그의 퇴임사 역시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세계정세는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는 내부적 갈등과 분열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꺼안고 화합하고 상상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얼마나 지성스러우면서도 의연한 메시지인가. 그에 비하면, 이 나라를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국민의 분열을 가진 사람인지, 보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성향이 담긴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선택을 따르게 될 때가 있고, 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기에, 그리고 그 누구도 악역은 아니기에...

정춘 특·특

당신은 보스인가 리더인가



한정민 광명·꿈틀 대표

당신은 보스와 리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보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리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둘 중 누가 악역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 사람은 보스를 악역이라고 생각했다. 보스는 웬지 권위적인 모습으로 비친다. 이 때문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긴 하다. 보스를 무조건 옹호해줄 생각은 없으나, 보스가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본다. 보스와 리더를 그저 편견, 선입견 없이 생각해보고자 한다.

꿈틀에서 진행하는 ‘정춘 특 투유’라는 강연문화가 있다. 너무 대단한 사람, 너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연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강연이다. 최근 한 청년이 “‘보스와 리더’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린면 꼭 들어 보고 싶다”라고 말했고, 우리는 “들어보고 싶은걸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렇게 그 청년과 함께 ‘보스와 리더’를 주제로 정춘 특 투유 5회 강연을 진행하게 됐다. 이는 나에게도 보스와 리더 두 차이에 대해 수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다.

많은 사람에게 보스와 리더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봤다. ‘보스는 위에서 지켜보지만,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 ‘보스는 빨리 가지고 말하고, 리더는 함께 가지고 말한다’, ‘보스는 결점을 지적하지만, 리더는 장점을 칭찬한다’, ‘보스는 강압적이지만 리더는 민주적이다’ 등 각각의 의견들이 나왔다.

보스를 부정적으로, 리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게 옳은 결정이 될지는 알 수가 없다.

‘보스는 위에서 지켜보지만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 나간다’는 말과 관련된 이미지가 한 때 SNS 등에 퍼진 적이 있다. 이 이미지 속 보스는 팀원들이 끌고 가는 짐 위에 앉아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반대로 리더는 팀원들의 가장 뒀 앞에서 짐을 끌어가는 모습이다. 둘 중 어떠한 사람을 원하며,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보스는 팀원들의 짐을 덜어주고 힘을 보태주지는 않으나, 그들보다 높은 곳에 서서 더욱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된다. 리더는 낮은 곳에 있어 멀리 내다볼 수는 없으나, 팀원들의 짐을 덜어주고 힘을 보태주게 된다.

위험한 상황이 온다고 가정한다면 리더에 비해 보스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대비할 수 있다. 힘을 합쳐서 가야할 상황이라면 리더는 힘을 보태주기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다. 반대로 리더는 좁은 시야로 위험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지 못 할 수

도 있고, 힘을 합쳐서 가야하는 상황일 때 보스는 짐을 덜어주거나, 힘을 더해주지 않기에 더 늦게 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힘을 더해주는 게, 아니면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는 게 옳은 선택이 될 수 있고, 옳지 못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이 외에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있어 어떤 게 옳은 선택이 될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무게를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선택해야 하는 게 보스와 리더다.

‘보스는 틀리고 리더는 맞다’가 아니라 ‘보스와 리더는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리더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보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어떠한 성향이 담긴 선택을 할 것인지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선택을 따르게 될 때가 있고, 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기에, 그리고 그 누구도 악역은 아니기에...

기고

똑똑한 정보 소비자가 됩시다



조지현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러한 ‘잠미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에도 10여 명의 대선주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매주 발표되었지만, 앞으로 40여일 동안은 여론조사 수치로 울고 웃는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각 후보 지지자들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여차피 대세”라고 하기도 하고, “여론조사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니 여론조사는 조사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가 불건을 살 때 제품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봄과 현명한 소비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똑똑하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유념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첫 번째, 표본오차의 최대허용한계를 감안하여 결과를 읽는다. 만약, 표본오차의 최대허용한계가 95% 신뢰수준에서 ±3%포인트인 여론조사에서 A후보의 지지율이 32%, B후보의 지지율이 27%가 나왔다면 A후보가 우세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표본오차의 최대허용한계의 의미를 살펴보자. 위와 같은 결과는 같은 방식의 조사를 100번 했을 때 95번은 A후보의 지지율은 29%~35% 사이에, 그리고 B후보의 지지율은 24%~30% 사이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A후보가 우세하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한 기사에서는 “A후보는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 B후보에게 2위 자리를 내주고 3위로 내려앉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14.5%(A후보)와 14.6%(B후보)로 순위는 논할 수 없는 수치였다. 0.1%포인트 차이의 의미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1명의 응답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기사를 읽게 된다면 A후보와 B후보 사이에 큰 격차가 벌어진 것처럼 생각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표본오차를 고려할 때 결과표기시 소수점 아래를 떼어버리고 보도하는 것이 낫다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함께 그에 맞게 보도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사나 조사회사에서 좀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소수점 아래까지 발표하고 있는데(심지어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기하는 곳도 있다), 앞의 예와 같은 아무런 의미 없는 미세한 차이에 대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조사방법을 확인한다. 대선주자 지지를 조사의 경우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각 회사마다 유·무선 전화의 비율 및 면접원에 의한 조사와 자동응답시스템(ARS)에 의한 조사의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 고전적인 방식인 유선 전화(집 전화)를 대상으로 면접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와 무선 전화(휴대폰)를 대상으로 ARS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응답률 및 응답자의 성향이 차이가 있다. 면접원이 조사를 하는 경우는 응답률이 20% 가까이 나오기도 하지만, ARS 조사의 경우에는 5% 미만인 경우도 많다. 표본을 아무리 모집단에 가깝게 추출

한 경우라도 성향에 따라 응답률에 차이가 있으면 최종 응답자의 모습은 모집단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질문 문항을 확인한다.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적합도를 묻는 경우와 “다음 후보 중 선생님께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와 같이 지지도를 묻는 경우의 응답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가능한 여러 후보를 놓고 질문하는 경우(다자대결)와 특정 후보 2명 또는 3명만 놓고 질문하는 경우의 응답이 다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지지율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은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로만 가능하다. 1회사에서 실시한 A후보의 지난 주 지지율과 2회사에서 실시한 A후보의 이번 주 지지율을 비교하여 상승 또는 하락이라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의 조사방법 및 질문 문항 등을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똑똑한 정보 소비자가 되어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좋은 대통령을 뽑을 수 있기를 바란다.

社說

사필귀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해 온 검찰이 어제 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검찰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최소 6개월 구속 기간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부인하는 등 항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됐다. 또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전 박 전 대통령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지난주 김수남 검찰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공언해 어느 정도 입장이 마무리됐음을 시사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을 포함해 역대 전직 ‘피의자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13개에 달하는 데다 사안이 매우 중대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

서실장·조순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공범 관계에 있는 피의자들이 이미 무더기로 구속된 만큼 형평성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또한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부인하는 등 항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치주의에 입각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일각에선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싼 미묘한 기류가 감돌았다고 하지만 온전한 법과 정의의 원칙을 놓고 보면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 자체가 워낙 막중한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영장전담 판사는 이 같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속영장청구가 적폐 청산과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공직자 재산 형성 과정 검증 의무화해야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해 고위 공직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개 대상자 1800명에 대한 전기 재산 변동 사항 신고 내역을 최근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1800명 중 재산 증가자는 1382명으로 76.8%에 달했고 재산 감소자는 418명으로 23.2%에 불과했다. 재산 증가자 중 1억 원 이상 늘어난 고위 공직자는 1702명이었으며, 50억 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62명(3.4%)에 달했다. 이어 20억 이상 50억 원 미만인 274명(15.2%), 10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449명(24.9%),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80명(26.7%),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437명(24.3%)이었다. 이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 말고는 달리 할 게 없는 국민의 박탈감만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윤리위가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을 엄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은 이미 지난해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감사장의 재산 증식 의혹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섰으나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다시 고위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재산 신고 사항을 위반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전북 장수군 장수를 수분리는 호남 정맥 마루금(능선)에 자리한 마을이다. 마을 이름은 문자 그대로 물(水)이 나뉘진다(分)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스갯소리로 이 마을 지붕 한쪽 빗물은 섬진강으로, 다른 한쪽은 금강으로 흘러든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지리관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 장소이다.

조상의 전통적 지리 개념은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던 산맥과는 다르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은 1903년 일

(大幹)·1정간(正幹)·13 정맥(正脈)으로 체계화했다.

1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이다. 호남 땅을 가갯소리로 이 마을 지붕 한쪽 빗물은 섬진강으로, 다른 한쪽은 금강으로 흘러든다고 한다. 우리의 전통적인 지리관을 잘 보여 주는 대표적 장소이다.

조상의 전통적 지리 개념은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있던 산맥과는 다르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노령산맥 등은 1903년 일

백두대간의 가치

결과를 발표했다. 백두대간과 정맥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산림 혜택이 연간 2조90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호남정맥은 연간 1100억 원이라고 추산했다. 반면 1만800여 곳 이상에서 도로 개설과 채석 등으로 인해 대규모 훼손이 발생했다고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전통적인 산줄기 개념을 원상회복하는 일이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산맥’을 우리의 전통적 지리관으로 바로잡는 작업은 요원하기만 할까?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제 061482호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지정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